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7. 05	07. 12	07. 19
대표 기도	이상호 목사	정환영 형제	이예준 형제
성경 봉독	최상우 형제	정환영 형제	이예준 형제

교회소식

6월의 축복 인사 :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됨을 축하합니다!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성찬식 - 다음 주일(7월5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합니다.
4. 6월 생일 축하 - 김영희 권사, 정해욱 형제
5. 고국 방문 : 최종열, 이윤선 성도 가정
6. 나눔의 시간 - 예배 후 천교실에서 모입니다.

교우동정

생일	정해욱 형제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주일학교	
감사헌금	
십 일 조	
합계(Euro)	
온라인헌금(5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2:10)”



브레멘 한민교회 -

Bremen Hanmin Church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Jin Soon Chung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홈페이지 : 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70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이윤선 성도
성경봉독 Predigttext	나 1 : 2 - 8(구p1298) (Nahum 1:2~8)	이윤선 성도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금기도 Kollektgebet	-----	이상호 목사
설교 Predigt	환난 날의 산성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주와 같이 길 가는 것(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섬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섬김이들, 청년들의 진로(진학, 취업, 결혼)를 위해
2.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 청년들의 가치관 확립을 위해(진로, 결혼)
3.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황희순 집사님)
4.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되도록

환난 날의 산성

나훔서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니느웨를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에게는 환난 날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I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죄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자신과 세상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게 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II 하나님은 바다와 산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다.

당시 최강국 앗수르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권력과 재물을 의지하지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만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III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산성이 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백성에게는 환난 날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아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며 보호하십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주시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 주고, 부활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영광은 사라지지만 하나님과 그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며, 우리의 영원한 산성이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소 모임을 위한 질문

1. 나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니느웨 성벽”은 무엇인가요?
2.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환난 날의 산성이 되고 있나요?